

깜짝 놀란 카나는 "분명히 촬영하면 안 된다고 거절했었다. 그래서 안심했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나는 큰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껴 방송 도중 눈물을 보였다. 카메라는 이 모습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아 그대로 방송했다.

카나의 집에 쳐들어간 제작진은 집안을 낱낱이 공개했다.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라는 말로 MC들은 카나를 위로했다.

집안 곳곳의 옷가지와 쓰레기, 침대 위의 물건까지 카나의 사생활은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내내 카나는 황당함과 수치심을 드러내며 안절부절못했다.